



6월 '여행가는 달', 강화도와 함께!

볼거리도 풍부, 각종 할인 및 이벤트 진행



소창체험관



조양방직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여행가는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관광지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달'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업계와 함께 다양한 여행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강화군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혼자 또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또한, 군은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달 31일부터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종의 명예주민증인 강화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고 강화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차량을 찾아 관광 안내사에게 보여주면 갑곶돈대 기념 배지와 함께 귀여운 도자기 자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원도심 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소창체험관, 조양방직, 구세의원 판매장, 한옥카페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참가 기념품으로 원도심 관광기념 배지 또는 소창 컵받침을 받을 수 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강화실감형 미래체험관에서는 체험료를 6월 한 달간 10%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화실감형 미래체험관은 가상현실 VR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래 세계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한 첨단 콘텐츠 체험관이다. 이외에도 '제3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월별 강화나들길 1개 코스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진행되는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화나들길의 이용에 흥미를 북돋고, 강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6월에는 초지진에서 분오리돈대까지 해안 산책길을 따라서 이어지는 강화나들길 8코스가 선정되었다. 총 10개의 장소에서 스탬프를 4개 이상 획득 시 이벤트에 응모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5,000원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

- 최벽하 기자

제3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참여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30일	참여혜택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5,000원 문화상품권 지급
참여코스 강화나들길 8코스(초지진 ~ 동막해변)	참가방법 「워크온」 모바일 앱 설치 및 가입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 선택 후 참여
참가지역 강화나들길 이용객 누구나 참여 가능 (스마트폰 소지자 참여 가능)	스탬프 4개 이상 획득 시 응모가능

강화나들길 스탬프 획득장소

1. 초지진
2. 황산도 어촌마을 (대크길)
3. 황산도선하정
4. 소황산도개방길
5. 동강도 입구
6. 선두6리 어만정
7. 후매논대
8. 선두4리 어만정
9. 분오리만정
10. 동막해변

※ 스탬프 4개 획득 시 응모가능!!

강화군, 제68회 현충일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넋기려



68회 현충일 추념식



68회 현충일 추념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6일 오전 강화읍 전자산 현충탑 광장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이날 추념식에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해 강화군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의원, 해병 제5여단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추념식에는 해병제5여단 장병들의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추념사를 낭독하면서 추념식을 마무리했다.

유천호 군수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군에서는 보훈가족의 희생과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지 않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8일 화개정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32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강화전쟁박물관, 문예회관, 의료기관 등 20여 개소에 대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중에 있다.

이번에 시행된 캠페인에서는 집중안전점검 홍보의 일환으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가정과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각종 안전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는 안전 문화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안전점검은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날’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7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날’을 운영했다.

산림공원 녹지분야 근로자 및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총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강화소방서 소방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응급상황 대처 능력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소중한 군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유천호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개인의 응급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예방 <안전교육의 날>

강화군 이장단,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이장단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이장단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강화군 이장(이장협의회장 김상배) 155명은 2일 인천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5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및 10개 군·구 단체장, 각종 단체 등 4,50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장들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천호 강화군수가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고생한 강화군 이장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사기를 높여주었다. 이로 인해 강화군

이장들은 더욱 한 마음 한뜻이 되어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끼와 열정을 맘껏 펼쳤다.

김상배 강화군 이장협의회장은 "강화군은 지리적으로 다른 이·통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는데,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이·통장들과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천호 강화군수는 "항상 지역의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고생한 이장들이 오늘날만큼은 다 잊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노인회, 2023년 인천광역시장기 노인건강 체육대회 참석



노인건강체육대회



노인건강체육대회

강화군노인회(회장 장기천)는 9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장기 노인건강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사)대한노인회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인천시장기 노인건강 체육대회는 백세시대를 맞아 모두가 화합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체육 활동기회를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노인건강 체육대회대회에는 인천시 10개 군구 노인회에서 선발된 게이트볼 72개팀, 그라운드 골프 20개팀, 한궁 20개팀, 바둑 40명, 장기 30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식전공연에 이어 개회식, 체육대회,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종목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회는 전국 종목별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강화군노인회는 지난해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또한 인천 내 게이트볼의 최강자답게 강화군에서는 18개팀 94명이 출전하여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선수단이 출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경기 출전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제 287회 정례회(사진제공 강화군의의회)

강화군의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6월 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87회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회사에서 박승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와 성실한 응대를 당부했다.

1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실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차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6월 7일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의 강화군 사업 전반을 점검하였고, 1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또한 “코로나19 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맞아 일상 회복 지원방안과 자율방역 체제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152주기 광성제 봉행, 신미양요 호국영령 어재연 장군·무명용사 추모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2일 광성보 내 충장사에서 신미양요 때 순국한 어재연 장군과 조선방어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제152주기 광성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태산 부군수, 박승한 강화군의의회 의장, 어재연 장군 현손 등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조총 발사, 수자기 게양, 어재연 장군에 대한 제향 및 순국용사에 대한 신위 추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미양요는 1871년(고종8) 서면호 사건(1866년)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미국의 로저스제독의 아시아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다.

어재연(魚在淵) 장군은 350여명의 조선군 병사들과 광성보에서 미군과 치열하게 싸우다 순절했다. 이때 어재연 장군은 수자기를 장군기로 사용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국조 단군성조의 개국과 역사를 함께 한 고장이며 외세에 맞선 항쟁의 보루로써 역사의 굴곡을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극복해낸 국난극복의 현장이다."며, "본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 번 순국충절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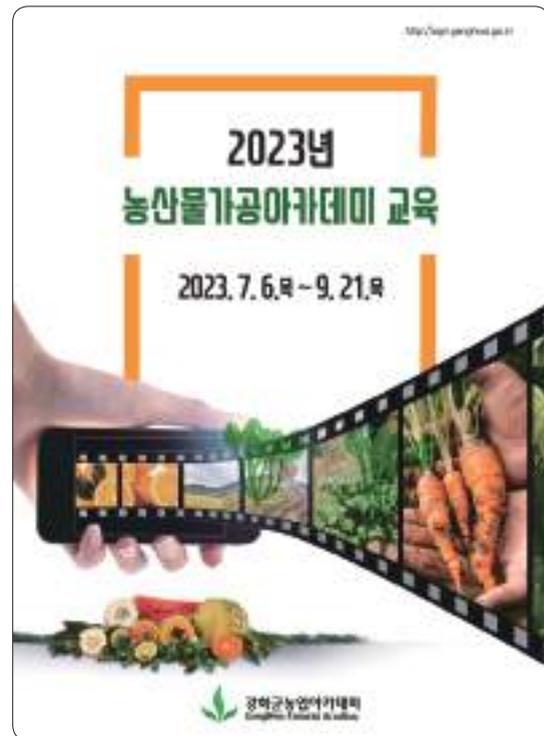


광성제 봉행

강화군, 하반기 농업아카데미 20일까지 교육생 모집



농업아카데미 교육현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하반기 농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총 8개 과정으로 ▲양봉 ▲생활원에 ▲미생물 활용 ▲강소농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치유농업과정 ▲농산물 가공 ▲유튜브 마케팅 과정이 마련돼 있다.

현장 중심의 기술 습득 및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실제 영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정과 미래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신청자격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한다.

교육은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인 2개 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 개별통지 한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yjlee1234@korea.kr)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32-930-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화쌀 활용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 쌀 가공전문인력 양성 '떡 제조기능사반' 운영

강화군 농업아카데미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중인 떡 제조 기능사반 교육생 전원이 정기 기능사 2회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떡 제조 기능사반은 우리 떡에 대한 지식과 제조 기술 습득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나아가 떡 가공을 통한 소규모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나라 떡의 역사와 문화, 위생 안전관리 등 이론 과정 2회와 전통 떡 8종에 대한 실습 과정 8회, 모의 테스트 5회로 총 15주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2회 필기시험에서 교육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생들은 지친 일상과 바쁜 농사일에도 시간을 쪼개어 성실히 교육에 참석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6월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떡 제조기능사는 식품위생과 개인 안전 관리에 유의해 여러 공정을 거쳐 각종 떡류를 만드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인 전문가다.

한 교육생은 "어머니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떡 제조 기술 능력을 갖춰 떡으로 만든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다."라며, "강화군민으로서 강화 쌀 소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쌀이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쌀을 활용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쌀 소비 촉진을 이끌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을 운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떡 제조기능사반(사진제공 -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강화군, 수산자원 증강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황산도항, 점농어 31만마리 방류



황산도항 점농어 방류

강화군(유천호)은 8일 길상면 황산도항에서 점농어 31만 마리를 방류했다.

시비를 지원받아 강화군 주관으로 진행된 점농어 방류에는 군 관계

자를 비롯해 경인북부수협, 지역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점농어는 서해 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외관은 농어와 비슷하고 몸에 점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은 최근 고갈되어가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자원의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시비를 포함해 예산 약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번 점 농어 방류를 시작으로 7월 꽃게, 조피볼락을 추가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남획,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어장의 수산자원 증가와 어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화군, 민간의료기관 60개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23년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자성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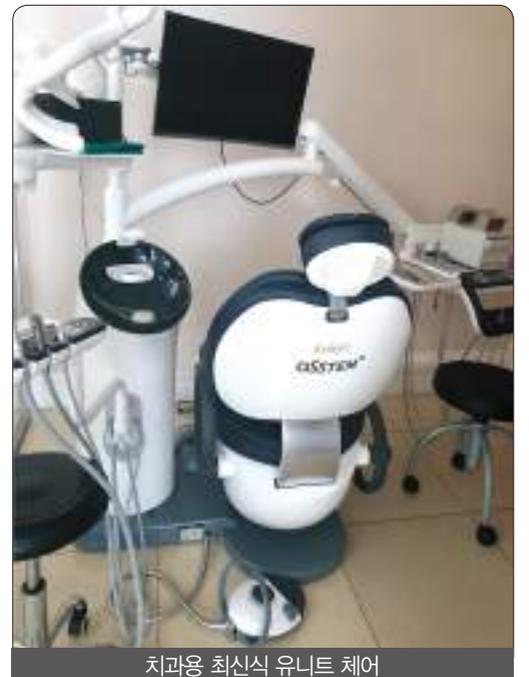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지원한다.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지역주민 대부분이 만성질환 및 기타 중증도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은 5억 원, 그 외 요양병원 및 의원 등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2020년부터 병의원 및 치과, 한의원 등 40개소에 약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은 노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교체하고 최신형 의료장비를 구입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지원받은 한 의료기관에서는 대학병원급 최신 내시경 기기를 구입해 위암 5명, 대장암 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과용 최신식 유니트 체어

초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생명연장에 기여했다.

또한 내시경기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물리치료장비, 치과용 CT 등의 의료기기 도입으로 타 지역으로 원정의료를 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군민들의 의료비 및 부대비용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요양병원 1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가 신청해 지난 3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재활치료기기, 구강스캐너, 추나베드 등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지속적인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또래의 고민을 듣고, 정서적 지지를 돕는 '제1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 개최



'2023년 제1기 강화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2023년 강화군 제1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또래상담자와 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계획 안내, 위촉, 선서문 낭독,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김은영 강사)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첫 출범한 '강화군 또래상담 연합회'는 총 6개 학교가 가입해 약 90여 명의 또래상담자가 활동할 예정이다.

또래상담자란 또래의 고민을 돕기 위한 일정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교내외 또래들을 도우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또래상담자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보수교육, 소진예방 프로그램, 지도교사 사례회의 등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 참여한 또래상담자 김○○은 "이렇게 많은 또래상담자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 앞으로도 함께 고민을 나누며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청소년 안전망 사업 등 강화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체험 및 학습 상담 강화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형 수학클리닉 캠프 운영



학생맞춤형 체험학습 (사진제공 강화교육지원청)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지난 8일 강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학클리닉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맞춤형 수학클리닉 캠프는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티코스터 테셀버드 작품 만들기, 라틴 방진 열쇠고리 만들기 등 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제공한다.

또한 관내 수학 교사들이 학생들의 맞춤형 수학 학습 상담과 성적, 적성과 진로 등의 개인별 고민 해결을 위한 수학 클리닉 활동도 함께 운영한다.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맞춤형 수학 캠프를 10월까지 프로그램을 4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학에 대한 불안 요소를 없애고, 자신감을 회복해 학습에 긍정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산림자원 가치증진 ‘숲가꾸기 사업’ 추진

사업비 6억 6천만원 투입, 임야 360ha /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재해예방



숲가꾸기 사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각종 산림재해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5월부터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야 360ha에 대해 대대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공익림 가꾸기, 덩굴 제거 등을 통해 산림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되고 토양 유출, 산사태, 대형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하는 사업이다.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은 하층식생이 8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직경이 3배 이상 성장하며, 수원함양과 맑은 물 공급 기능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실시되는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재해 예방,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군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5년간 258억 원 예산투입, 군자체 보상지침 마련 / 군민 부담 최소화, 도로관리 기능 회복에 최선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측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부터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미불용지는 과거 1960~1970년대 본격적인 개발시대인 새마을사업부터 개인 사유지를 조금씩 양보해 확포장 후 공공용 도로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도로 폐쇄, 원상 복구 요구,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소송 제기 등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법정 도로와 달리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돼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2019년부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대해 내부 방침을 수립을 위해 군민들과 꾸준히 의사소통을 통해 보상지침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개인도로를 공공용 도로로 탈바꿈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회의 등 홍보로 직접 신청을 받아 군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를 토대로 감정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기준 3,000여 필지를 접수 받아 1,800필지,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면적 약 13,703㎡(4,145평)을 강화군 토지로 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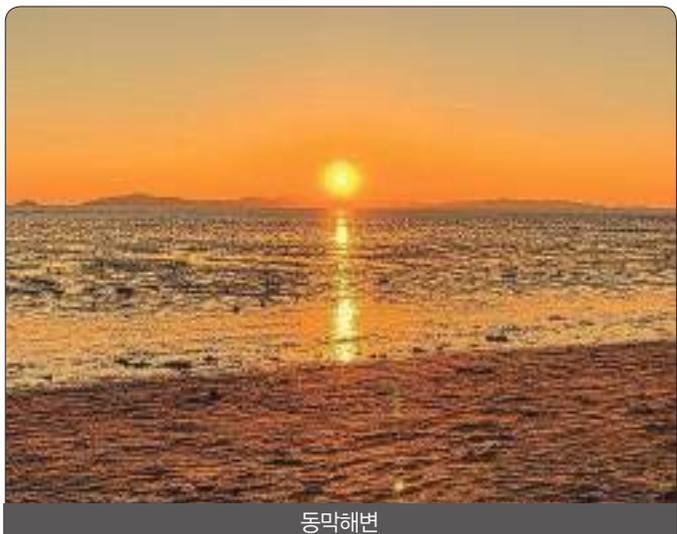
이에 마을안길 분쟁지역 민원 해결 및 도로 관련 소송 감소로 행정력·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였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물론 분할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또한 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군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민선 8기 2026년까지 총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도로관리 기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인천 해수욕장, 7월 1일부터 순차적 개장

강화군 동막, 민머루 해변 7월 1일 개장 / 인천시,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동막해변



민머루 해수욕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11개소, 해변 18개소 등 총 29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7월 1일 강화군 동막, 민머루 해변·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옹진군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인천의 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92만여 명의 많은 이용객이 인천의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이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시 및 강화군,

옹진군, 중구는 관내 해수욕장 및 해변 29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이용객 안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군·구에서는 공무원 및 수상 안전 관리 요원을 투입하고, 해경, 소방서, 경찰 등과 협력해 이용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올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많은 이용객이 인천의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

2023 커피콘서트 7~12월 라인업 발표 인천문화예술회관 <2023 하반기 커피콘서트 하반기>

2008년에 시작해 누적관객 8만 6천명을 돌파하며 **인천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커피콘서트>**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차의 라인업을 공개한다.

매달 한 번,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커피콘서트>는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다양한 무대를 만나는 마티네 콘서트(Matinée Concert)이다.

<커피콘서트>는 열렬히 아티스트를 맞이하는 관객들에게 가슴 속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 교감을 나눌 수 있어 출연자가 행복한 무대로도 손꼽힌다.

올해는 총 10회로 예정, 3월부터 6월까지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서 관객들을 만나며, 하반기에는 원도심인 동구 문화체육센터로 자리를 옮겨 커피향만큼 진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하반기 첫 무대인 7월 공연은 한국 록발라드의 레전드, 싱어송라이터 **김중서**가 커피콘서트 하반기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김중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락 뮤지션으로, '아름다운 구속'과 '겨울비', '대답 없는 너' 등의 대표곡이 있다.

8월은 **악단광철**의 무대이다. 세계 최대 월드뮤직마켓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으며, 장르를 불문하여 러브콜을 받고있는 강력한 밴드이다.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와 재즈 베이스스트 최진배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 더블베이스 듀오 <**콘트라스트(KONTRAS2)**>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무대를 장식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두 천재 아티스트의 만남을 10월 무대에서 볼 수 있다.

11월은 가을의 끝자락에 어울릴 만한 공연으로, '한국 블루스계의 디바'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블루스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림**의 무대이다.

2023년 커피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는 재즈, 팝, 피아노 소품집, 수면음악 등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을 향한 끝없는 탐구적 열정을 가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윤한**이 장식한다.

2023년 하반기에도 <커피콘서트>의 일상 속 환경보호는 계속된다. 공연 전·후 로비에서 제공되는 커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다회용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고 준비하지 못한 관객은 공연 종료 후 커피를 받아 귀가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한 잔의 커피처럼 삶의 여유를 선사할 <커피콘서트>는 개별 공연 당 전석 1만5천원이며,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은 50% 할인,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친구는 20% 할인받을 수 있다. [1]



기고

이경수

고려 강화 도읍기의 문화 예술



세계금속활자발상증흥기념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경(출처 경인일보)

팔만대장경

1232년(고종 19)부터 1270년(원종 11)까지 39년 동안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고려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그 중심에 강도(江都)가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상정고금예문》이 강화에서 탄생했습니다. 국보급 고려청자 상당수가 강화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불경 등 부처님 말씀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통틀어 대장경(大藏經)이라고 합니다. 대장경을 인쇄해서 보급할 목적으로 목판에 새긴 것을 대장경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팔만대장경’은 엄밀히 말하면 ‘팔만대장경판’입니다. 경판이 8만 장이 넘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팔만대장경은 ‘재조대장경’, ‘고려대장경’, ‘강화경판(江華京板) 고려대장경’ 등으로도 불립니다. 문화유산(국보) 공식 명칭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입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으로 호칭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의 다른 이름들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이 ‘재조대장경’입니다. 재(再)는 ‘재방송’의 그 ‘재’입니다. 그러니까 재조(再雕)는 다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고려에서 처음 만든 대장경은 무엇이라고 하나. ‘초조대장경’입니다.

고려 초에 초조대장경을 조성했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거란군을 무찌르겠다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모셔졌던 초조대장경을 1232년(고종 19)에 몽골군이 불 질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정부가 주도하여 대장경 조판을 다시 하니, 그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요, 재조대장경인 것입니다. 초조대장경이 거란군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았다면, 재조대장경은 몽골군을 무찌르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송해면 고려천도공원에 ‘국난극복-팔만대장경’이라고 새긴 탑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에 이런 문



고려천도공원 조형물

장이 있어요.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지속적인 항쟁을 이어나가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아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아니죠? 안내판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1236년(고종 23)에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251년(고종 38)에 이 거대 작업이 종료됩니다. 1236년부터 16년 걸렸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더 걸렸을 것입니다.

대장경 조성 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총지휘한 기구가 대장도감(大藏都監)입니다. 당연히 강화에 대장도감이 있었습니다. 대장경 조성을 강화에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경상도 남해와 경주 등에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도 판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강화 대장도감이 ‘본사’라면 분사대장도감들은 ‘지사’가 됐던 셈입니다.

선원사는 강도시기에 창건된 절입니다. 최우가 1245년(고종 32)에 세웠는데 조선 초쯤에 폐사되고 지금은 터만 전합니다. 오백여 칸 크고 작은 건물에서 수백 명의 승려가 생활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사찰이었습니다. 환도 이후에도 번성했던 이 큰 절이 어떤 연유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원사가 팔만대장경 판각 성지로 알려졌지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원사가 세워진 1245년에는 이미 대장경 판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선원사에서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창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조성 사업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선원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원사지를 몇 차례 발굴했지만, 선원사가 확실하다고 말할 만한 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화의 읍지인 《속수증보강도지》 등에 충렬사 근처에 선원사가 있었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맞다, 아니다, 의견이 나뉩니다.

금속활자

인쇄 문화 강국, 고려입니다. 팔만대장경 같은 목판 인쇄는 물론이고 금속활자까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으니깐요. 《상정고금예문》이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말해집니다. 1234년~1241년 사이 어느 해엔가 인쇄한 것 같고요, 그 장소도 강화였습니다.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의 뜻을 풀어봅니다. 고금(古今)의 예(禮)를 상정(詳定, 상세하게 논의하여 규정함)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제사를 비롯한 각종 의식 절차, 복식, 음악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의례집이 《상정고금예문》입니다.

이 책은 고려 의종 때인 12세기 중엽에 나라의 명을 받은 최윤의 등에 의해 편찬됐습니다. 강화에서 처음 제작된 책은 아닙니다. 강화로 천도할 때 담당 관청에서 챙겨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우가 한 부 갖고 있었지요.

주자(鑄字)를 사용해서 28본을 인출하여 제사(諸司)에 나누어 보내 간수하게 하니, 모든 유사(有司)는 일실 되지 않게 삼가 전하여 나의 통절한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동국이상국집》

최우는 자신이 갖고 있던 《상정고금예문》을 저본으로 해서 새로 28부를 인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자(鑄字)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주자가 곧 금속활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책을 관련 부서에 나눠주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나의 통절한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지요. 흔히 ‘직지’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1377년(우왕 3)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책인데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는 강화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해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 정족산사고(또는 외규장각)에서 ‘직지’를 훔쳐 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에 왔던 프랑스인 동양학자가 ‘직지’를 구입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서양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로 인쇄한 사람은 독일의 구텐베르크입니다. 1450년쯤이었다고 해요. 고려에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고 대략 200년 뒤의 일입니다. 고려에서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하고 70여 년 뒤입니다.

금속활자는 인쇄를 목적으로 발명된 것이죠. 인쇄하려면 종이와 먹이 필요합니다. 글자가 번지지 않고 인쇄 중에 찢어지지 않으며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종이! 금속에 적절하게 묻어서 또렷하게 글자를 찍어낼 수 있는 기능성 먹!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활자·종이·먹 모두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강화전쟁박물관(갑곶돈대) 마당에 ‘세계금속활자발상증흥기념비(世界金屬活字發祥中興紀念碑)’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상’은 ‘發想’이라고 쓰지요. 어떤 생각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비석 이름에 쓴 ‘發祥’이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질만한 일이 처음으로 나타남’을 뜻합니다.

곧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어디에 있나? 인천 송도입니다. 전국 여러 시도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최종 승자는 인천시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강화가 큰 역할을 했을



강화 선원사지(출처 강화군청)

겁니다.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의 고향이 강화입니다. 점자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교동입니다.

고려청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청자를 짚어봅니다.

강화 도읍기에 강화에서 고품질의 청자가 생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라도 부안과 강진 등에서 제작한 청자가 강화도로 공급됐습니다. 왕릉과 지배층의 무덤에 그 청자도 같이 묻혔어요. 대략 40년 도읍이었으니 강화에서 사망한 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함께 묻힌 청자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과 함께 영원히 땅속에 잠든 청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세상에 나와버렸습시다.

밭굴이 아니라 도굴입니다. 개항 후 들이닥친 일본인 도굴꾼들이 개성과 강화의 산이란 산은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일본인에게 기술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굴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름난 청자 대개가 강화에 묻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상감청자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국보)이 발견된 곳이 강화입니다. 무신집권자 최우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해요. 최우의 무덤이 고려산 어딘가에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은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간송’은 전형필(1906년~1962)의 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아마모토라는 사람이 강화에서 이 청자를 도굴해서 스즈키에게 천 원에 넘겼다고 합니다. 천 원이면 당시 서울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던대요. 마에다라는 이가 6천 원에 사들여서 무려 2만 원을 부릅니다. 전형필이 이 매병을 2만 원에 삽니다. 기와집 스무 채 값을 선뜻 지불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도자기 수집가가 전형필을 찾아옵니다. 그는 전형필에게 4만 원에 팔라고 간청합니다. 더 달라면 더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형필은 거절합니다. 돈 불리려고 산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독립운동이었습시다.

역시 국보인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도 강화에서 출토됐습니다. 최우 아들 최항의 묘에서 나왔다고 전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송해면 어디선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항의 묘는 “진강현 서쪽 창지산 기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청자는 지금 리움미술관에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청자진사연화문 표형주자’였습시다. 이름 바꿔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며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청자동채 연화문 표형 주자’라고 표기했네요. ①

(이 글은 2020년에 강화문화원이 출간한 《고려 대몽항쟁과 강화 천도》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출처 문화재청)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출처 문화재청)

강화군 새마을회,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

직접 담근 여름김치 1,000세대 전달



강화군새마을회 여름김치 나눔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15일 도래미마을에서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강화군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임순)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회장 이범택)의 주관으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여름김치를 직접 담가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했다.

강화군 새마을회 조인술 회장은 "해마다 여름김치 나눔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 새마을회가 앞장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강화군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지역 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시는 강화군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강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추석송편 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이부자리 지원 사업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강화군노인복지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인천 역사 체험'



강화군노인복지관 인천역사체험 및 명소 탐방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지난 14일 경로당여가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40명과 함께 '인천 역사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역사체험은 인천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진행한 2023년 관광취

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사업 '인천 명소관광 공모사업'에 강화군노인복지관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월미 바다열차(모노레일) 탑승을 시작으로 경성 흑백 사진관에서 추억 만들기, 영종도 행 선박 탑승 후 갈매기 먹이 주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코로나 이후 어르신들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체험에 참여한 어르신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 외로웠는데, 모처럼 새로운 경험으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심 관장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인천 역사 체험 문화를 체험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화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문화를 향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희망운동캠페인 전개



강화군협의회 희망운동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는 15일 풍물시장 앞에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희망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구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마련한 이날 캠페인에서 회원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장바구니 200개를 나눠주었다. 1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을 부탁했다.

임인관 회장은 "환경보호는 개인 컵 사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살기 좋고 깨끗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호 활동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 교동도(월선포)에 올려 퍼진 작은 음악회

한국문인협회 이돈성 시인이 지난 3일 강화 교동도 월선포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작은 음악회는 오후 7시부터 버스킹 형식으로 6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흠처치브라스밴드의 연주로 막을 올렸다.

60대 부부 10명이 참여한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는 흠처치브라스밴드(단장 백한영)'는 ▲고향무정 ▲고맙소 ▲새타령 ▲사랑의 거리 등 10곡의 연주곡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흠처치브라더스밴드의 초록색 타이스카프와 흰색티 복장이 월선포와 어우러지면서 분위기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날 브라스밴드는 즉석에서 지역 모임 축제에 초청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흥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추기도 하며, '고향무정', '사랑의거리' 등 귀에 익숙한 노래가 연주되자 폐창을 하기도 하였다.

상용리 주민 김상진(83)씨를 비롯한 몇몇 지역 주민 및 경기도 화성에서 방문한 관광객 부부가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며 관광객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시원하고 행복한 밤을 보냈다.

특별출연에는 실향민을 위한 공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교동출신' 가수 안도가 참여하여 '보라 빛 엽서' 등 3곡으로 관객의 마음을 녹였다.

작은 음악회를 기획한 이돈성 시인이 자작시 <상용리 하늘아래에서>를 직접 낭송하며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음악회의 장소 및 조명 등 편의를 제공한 조아름 해살슈퍼마켓 사장은 "처음에 버스킹 관객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과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상용리 노인회 이영조 사무장(73)은 "북한이 인접한 섬지역 특성상 문화의 시간을 갖기 힘든데다 못자리 내기 등 일에 지친 주민들에게 이같은 문화의 시간이 제공되어 매우 고맙다"면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상용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사를 기획한 이돈성 휴전선 시인은 "남북접경 지역인데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답답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듯하여 지인을 초청하여 버스킹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면서 "향후 더욱 규모가 크고 계획성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상용리 하늘 아래에서

이돈성

내 생명 최후의 날에
님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연인 품 같은 곳

못 생명이 탄생하고 사멸이 반복되어도
자연의 일상처럼 자연스런
태초의 자유와 평화가 깃든 곳이어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월선포에서 만나
바다정원을 이루고
한겨레 단장의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갈매기 노래소리 가득한 곳
자연의 향기 그윽한

강화 교동면 상용리 들녘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짙은 해무를 머금은 채
뜨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포용력 부족을 용서 빌고 싶어라

비록 상상일지라도
수로와 바닷길에서 조용히 그대 손 잡으며
만드시 나의 지난날을 고쳐 걸으리 걸으리라

실날같은 생명의 불꽃이 사위어 갈지라도
마지막 남은 숨 한모금을
상용리 하늘 아래에서 마실 수만 있다면

칼럼

거짓말 향연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거짓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다. 유명한 얘기여서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양에는 이보다 오래되고 실감나는 얘기가 있다.

중국 주나라의 경국지색(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던 ‘포사’ 이야기다. 포사를 후궁으로 받아들인 주나라 유왕에게는 걱정이 있었다. 절세의 미인인 포사가 웃지를 앓았던 것이다. 왕은 애간장이 타 어떻게 하면 웃겠냐고 물으니 포사는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자 유왕은 신하들에게 비단을 찢게 했다. 신하들은 포사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단을 찢어댔지만, 포사는 살짝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다. 하루는 여산에서 봉화(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호로 올리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관리자 실수로 그랬던 것이다.

봉화를 본 제후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급히 상경했다가 아무 일도 없음을 알고 화를 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포사가 크게 웃었다. 재미를 본 유왕은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올리게 했지만, 제후들은 계속 속을 만큼 바보가 아니었다.

유왕은 정비인 신후가 낳은 아들을 내치고 포사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이에 격노한 신후는 오랑캐인 견융족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다. 견융족이 쳐들어오자 급히 봉화를 올렸으나 제후들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유왕은 피난을 가던 중 붙잡혀 죽었다.

세계사를 관통해보면 거짓말에 도가 튼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최 우선 순위는 역시 히틀러다. 그는 거짓을 토대로 한 선전·선동으로 독일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히틀러가 최악의 독재자인 점을 들어 쿠데타나 혁명으로 집권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각종 선거에서 승리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다져갔으며, 1934년에는 유권자 4555만명 중 95.7%가 투표해 88.1% 득표로 마침내 총통 자리에 올랐다.

선거는 그가 거짓말을 실험하는 무대였다. 순전히 허 하나로 집권한 것이다. 히틀러는 “거짓말을 하려면 최대한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3만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임기 4년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3만 573번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팀은 4년간 2만5000개가 넘는 트럼프의 트윗을 분석하고, 대중연설 등을 통해 그가 사용한 500만개 단어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의 거짓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 해는 하루 평균 6건의 허위 발언을 했고, 2년차는 16건, 3년차는 22건, 마지막 해는 39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허위 발언이 1만개를 돌파하기까지 27개월이 걸렸지만, 2만개는 14개월, 3만개는 5개월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쯤되면 거짓말 자판기다. 김일성 또한 빼놓으면 섭섭할 것이다. 그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는 일제 13년간 20만번의 항일투쟁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루 25번 꼴이다. 독립운동을 독려하는 전단지 하루에 25장 뿌렸다면 그런대로 말이 된다.

심지어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주민교육용 교재에는 “김일성이 축지법을 쓰는 가 하면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삭제됐다. 손자가 보기에도 황당했던 모양이다. 거짓말 경진대회가 열린다면 트럼프와 김일성이 겨뤄볼 만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거짓말 신기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해명-번복-재해명을 10여 차례 되풀이 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의원은 당당하다 못해 진실돼 보인다. 얼굴 표정만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가. 혐의를 입증하는 녹취(육성)가 공개되고 관련 증언이 있음에도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다. 정치권 한 인사는 “마치 민주화운동이라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길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검찰청을 방문해 “나를 빨리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도 양심은 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돈봉투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어졌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지난 8일 다시 검찰청을 찾아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다. 누구 말대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이러한 쇼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열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거짓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만큼 덮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일반인들은 대체로 이 말에 공감한다. 그런데 이 쉬운 논리를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듯하다. 비리나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거의 모두가 무조건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궤변과 거짓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들 탓만 할 수는 없다. 일단 여론의 소나기만 피해가면 나중에 사태가 유아무야되는 일이 적지 않다. 오히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 이것이 공식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 정치계의 현실이니 거짓말 향연은 계속된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들 편을 들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허망한 꼴이 됐다. 이걸 자라나는 세대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

기고

학교 폭력 문제, 전인교육만이 해결책이다



이대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드라마의 모티브가 몇 년 전 청주의 모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고데기로 괴롭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얼마 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 때문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나 트롯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후보였으나 과거의 학폭 경력 때문에 경연에서 하차한 가수의 경우 등 ‘학폭’이 뜨거운 관심사이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교육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교육계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만연한 청소년 범죄와 비행, 학교 폭력 등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삶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공부만 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녀의 적성과 자질, 개인적인 꿈, 품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학생은 세상에 나갈 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한 채 몸집만 커 버린 어른아이가 되어 무방비상태로 현실에 내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배운 못된 습성과 갑질을 모방하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약자를 공격하는

야비한 방식으로 풀어 버리는 것이 학폭의 형태나 다양한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전인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 ‘체력은 국력’이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 국민들의 체력에 비례한다. 학생들에게 체력은 국력 이전에 그 자체가 학력이다.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욕과 정신력이 앞선다 해도 공부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영수 위주의 학습, 입시 중심의 학제, 진학에 최적화된 교육 체제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느긋하게 체력을 길러내는 것보다는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과 학업 평가에만 매달려왔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 60명 이상의 학생들을 우겨넣고 수학 공식 하나,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치는 걸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서 뛰어놀게 하는 것보다 시간 대비 효율이 뛰어나다고 여겼던 시절은 지나갔다.

사태가 바뀌었다. 이제 한 반에 기껏해야 스무 명 남짓한 학생들이 있을 뿐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전인교육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 덕, 체, 의의 균형잡힌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이 오로지 학생들의 지식만 채워주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 한다면 사회에 절름발이 인간들만 만들어 내보낼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은 이 불균형의 소산이다.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에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인천, 경기·강원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연도	구분	16주	17주	18주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누계	10	10	12	17	21	28	39
2023년	주간 신규발생	3	0	2	5	4	7	11	14
	누계	43	53	58	70	87	114	150	173
2022년	주간 신규발생	10	10	5	12	17	27	36	21
	누계	10	10	12	17	21	28	39	53

* 23주 누계 2022년 1.1.~6.10, 2023년 1.1.~6.10

올해 23주까지(1.1. ~ 6. 10.) 말라리아 환자수는 총 173명으로 전년(53명) 대비 120명(3.3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말라리아 추정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강원(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경보 발령 지역에는 추가사례 감지를 위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방제, 해당지역주민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진단검사 실시 및 예방약(프리마퀸)을 제공한다.

강화군은 22년 말라리아 환자의 수는 4명으로 10만 명당 5.76의 높은 발생률이다. 올해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기준(역학조사가 완료된 119건)으로 파주, 김포, 연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69세 말라리아 감염은 매년 휴가철 활동량이 많은 2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로 말라리아에 의한 합병증에 취약할 수 있다.

최근 강화군에서는 '민·관·군 합동 방역 발대식'을 갖고 모기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겨울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모기퇴치기 및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가동중에 있으며, 개인 모기 기피제를 가정에 배부하는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와 아시아권 이상기후 감시 및 기후를 예측하는 APEC기후센터(APCC)는 올 6~8월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 북부, 중국 서부 지역의 강수가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했다. 10도 이상의 물웅덩이에서 대량 증식할 수 있는 모기는, 덥고 습한 장마철을 이후 모기가 급증할 확률이 높아진다. 거주지 주변 고인물 등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거나 감염병관리팀(032-930-4372)으로 신고를 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위험국가 방문 사실을 알리고 진료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말라리아 환자 진단 시 가까운 비축기관에 말라리아 치료제(비경구용 주사제) 배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1]

말라리아 예방수칙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 말라리아 경보발령지역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할 것

말라리아 예방 안내문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국가입니다.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5월 ~ 10월경 환자 발생이 집중됩니다.
- 말라리아는 암컷 모기가 산란을 위해 주로 밤 9시~새벽 4시에 출몰하고, 3~4일 이후 눈이나 양말이 등에 선반을 칩니다.
- 주요 산란장소: 논이나 풀 고인 웅덩이, 호수, 저수지, 빗물 고인 곳, 배수지, 마당, 배수지 등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다음의 수칙을 지켜주세요.

개인 예방 수칙

-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어둠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질녘부터 취침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취침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세요.
- 모기장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확인!
- 모기장은 장시간 사용시 사람에게 송아기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풍기므로,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므로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세요.
- 맑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야외 작업(축사, 농촌활동 등)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
- 모기 기피제와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세요.
- 사용 전 제품 설명서 및 사용 지침을 꼭 읽고 꼭 지켜주세요.

모기 알레르기 및 예방수칙

-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딱정벌레 또는 육사주변에 많이 모이므로 유충을 제거합니다.
- 모기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과 전문의를 상담하세요.
-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하세요.
- 모기 유충의 서식처인 축사주변의 풀, 논, 관개수로, 웅덩이, 하천면, 정화조 등은 자주 확인하여 모기유충을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방제를 요청하세요.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민은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고 치료 받으세요.
- 말라리아는 신속진단키트로 15분만에 감염여부 확인 가능하고, 검사비용이 보험비용되어 일부만 본인부담금

문의사항: 관내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안내문(출처: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예방 민·관·군 합동발대식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매개모기에 물린 뒤 길게는 7일, 길게는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8시간 간격으로 반복

오한

발열

발한

두통

설사

구토

말라리아 증상(출처: 질병관리청)



북콘서트

- 일시 : 2023. 6. 23.(금) 저녁 7시
- 장소 : 강화교육지원청 2층 마니산홀
불은면 중앙로 607(연양대학교 건너편)

식전공연 : 레이우쿨렐레앙상블

철종의 눈물을 씻다

강화도령 이원범의 삶과 그의 시대사

이 경 수 지음



• 주최 : 강화역사문화연구소 • 후원 : 강화교육지원청, 디자인센터산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